



## 2013 새학기 학부모교실 진행



전국 15개 지부지회에서 새학기 학부모교실이 총 40회 차로 진행했다. 3개 지부지회는 3월에 총 9회 차로 진행 예정이다. 지난 1~2월 중 추진한 새학기

학부모교실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로 진행하거나 지역 교육단체와 연대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열렸다. 특히 지역 교육지원청과 결합해 새학

기 학부모교실을 진행한 지역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높아 시선을 끌었다.

##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 열려



2월 4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전망」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정진후 의원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우리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성기선 교수(가톨릭대)의 발제와 정동섭(교총), 이현(전교조),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임재홍(교수노조), 김현국(경기도교육청),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 자유학기제 토론회

2월 20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주제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후 7시, 늦은 시각임에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다. 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님의 발제에 이어 김무성(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 손동빈(전교조 참교육실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여자의 열띤 질문과 논의가 펼쳐졌다.





##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④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편집자 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교육당국과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로 인해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부는 '교권보호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과연 상충되는 것인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의 글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우리학교 선생님은 생활지도 달인

## 충분하기 전에

지금 학교는 예전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시끌시끌한 소리 대신 전혀 다른 소리로 골치가 아프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절차로 학생을 지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피해경험을 한 학생은 가해학생으로, 가해경험을 한 학생은 피해학생으로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권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권위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사의 노력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변화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학교폭력근절 다짐대회' 및 '행복 이꿈이' 발대식

지난 3월, '학교폭력근절다짐대회'가 학부모와 지역인사,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회 주최로 진행됐다. '친구사랑, 학교사랑,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 아래 전교생이 친구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했다. 노란색 학교폭력예방 어깨띠를 멘 학생들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근절서약서에 서명했다.

'행복 이꿈이'는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 학부모 모임이다. '행복 이꿈이' 학부모들은 노란색 조끼와 이름표를 다는데, 이는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는 발대식을 통해 '행복 이꿈이'를 학생들에게 공식화했다. '행복 이꿈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예방에 학부모들이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포했다.

## 일회성 학교폭력근절다짐대회가 아닌 민주적 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친구사랑, 학교사랑, 우리는 하나'가 구호에 끝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정책은 뒤로하더라도 우선 교사의 몫으로 던져진 교육현실을 고민했다. 권위적인 방식에서 민주적인 생활지도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수평적 대우를 받는 학급문화 만들기에 초점을 두었다.



## 생활지도 달인교사 되기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도 건강하게 지도할 수 있다. 학교는 교사들이 청소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철학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한편, 교사의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연수를 지원했다. 또한 교사동아리모임을 활성화하고 물적 지원을 통해 학생지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학급담임교사는 쑥스럽더라도 학생들 앞에서 비폭력 교사임을 선언했다. 어떤 교사는 선언하고 나니 속이 시원한 느낌이라며, 학생들의 박수소리가 지속적인 감정 통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학교폭력근절다짐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급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대회 때 서약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급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급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활동시간을 1학기 동안 월 1회씩 배정했다. 학생들이 학급규칙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킬 수 있도록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긍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천에 옮겼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학급 내 갈등 문제는 학급에서 해결한다는 기조아래 생활지도 달인교사인 담임은 문제 발생 시 학급회의를 소집, 토의와 협의로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멈춰!", "하지 마!"라고 정확히 의사표현하는 교육 홍보활동을 했다. 학급폭력예방단 구성을 통해 학급 내 서열화 구조를 파악하고, 특정학생이 힘으로 학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학생들에게 신고자 및 예방자 역할을 부여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학생들이 사랑결핐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은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말 한마디에 고무되기도 하고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긍정언어 사용과 기적질문을 권하고 지시적인 발언은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빨간 우체통'을 설치했다. 빨간 우체통은 고마움과 감사, 화해의 표현 등 친구 및 사제관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



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순화하는 계기가 됐다.

'생활지도 달인 교사'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를 공격의 대상이 아닌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급경영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학교폭력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역시 큰 효과다.

## 마무리

아수라장처럼 비추어지는 학교에 대한 보도는 다소 씁쓸하지만, 곳곳하게 교육적 소신을 실천하는 교사가 있기에 우리나라 미래는 밝다고 믿는다.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음을 느낀다. 그러나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도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이 정치적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조경희 (안양중학교 학생부장)



## 상·별점제, 선도부 대신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소통으로 교육하는 학교

가산중학교는 2010년 가을 학생, 교사, 학부모가 3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이 때 과반 수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상·별점제도의 폐지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위해 2011년에는 선도부를, 2012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상·별점 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2월 가산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글을 통해 상·별점제도가 가진 모순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 너, 별점 2점이다

“너, 별점 2점이다!”

우리 반에는 별점을 유독 많이 주시는 K선생님 흥내를 잘 내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K선생님처럼 별점을 주겠다며 친구들 앞에서 흥내를 내면, 반 친구들은 모두 배꼽을 잡으며 자지러졌다. 하지만 웃음 끝에는 꼭 몇몇 친구들의 한숨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벌써 별점 00점이다. 어떻게 하냐?”

“나 어제랑 오늘도 별점 먹었어.”

옆에서 듣기만 해도 별점 때문에 한 숨 쉬는 친구들의 속상함과 갑갑함이 느껴진다.

상·별점제를 직접 체험해 본 많은 학생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상·별점제가 있는 학교를 다니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에 상점을 주고 별점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상·별점 항목은 왜 그렇게 많은지. 상·별점을 주는 선생님이나 상·별점을 받는 학생들이나 그 많은 항목을 모두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적으면 몇 가지부터 많으면 수십 가지 행동이 상점 혹은 별점을 받는 행동으로 구분되어 우리의 목을 조여 온다.

‘이 행동은 별점을 받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 행동은 상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상점 받을 행동을 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갑갑함을 어른들은 알까?

수업시간도 마찬가지다. 별점을 받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숙제를 한다. 별점 때문에 그나마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자기주도학습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부는 스스로 꿈을 향해 노력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이 싫어서 하는 공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재미도 없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잘 했다고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매우 좋다. 하지만 상점을 받을 때는 왠지 내가 상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착한 척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의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별점도 마찬가지다. 내가 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내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 지도해줘야 하는데 그저 별점 몇 점 받거나, 별점이 쌓여서 다른 형태의 별을 받는 것으로 끝나다보니 학생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별점과 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를 나가기 전에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순전히 선의

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을 받기 위해, 또는 별점을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눈치만 살피는 요령만 배운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작은 사회인 것이다. 그 작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 되려면 학생들이 행복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인 ‘대화’와 ‘소통’을 두고 왜 굳이 상·별점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일까? 학생들도 어른들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상점과 별점을 주기 전에 우리 눈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내가 다녔던 가산중학교는 재작년(2011년) 교문 앞에서 상·별점을 주던 선도부가 없어지고 교장선생님이 교문에서 아침인사를 해 주신다. 작년(2012년)에는 상·별점제도도 없어졌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처음엔 나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도 했다. 그러나 내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멋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학교생활에서 우리들을 답답하게 조이던 끈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서인지 많은 친구들이 더 밝아지고 활기차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운동을, 춤을 잘 추는 친구는 춤을, 음악을 잘하는 친구는 음악을……. 매사 적극적으로 생활하려는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글을 빌어 상·별점이 없어진 자리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칭찬과 격려와 때론 따끔한 꾸지람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입학할 고등학교는 선도부도 있고 상·별점제도도 있고…….

신예진 (가산중학교 2012년 졸업생)





학부모활동시리즈 ①  
광주지부

## 2013년, 학부모회의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며 열정적인 그대들이여, 학부모회의의 임원이 되어라!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네~” 하고 대답은 씩씩하게 했다. 오늘은 약속한 원고 마감 날이다. 난 글 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긴 꺼야겠는데…….

후~~~~! 이런 게으른 내가 지난 2년간 부지런하게 된 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을 맡으면서였다. ‘기존 학부모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풀어준 것이 광주참학이었다.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지원 사업을 공모해보라는 지부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열심히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했지만 과연 사업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적지 않았다.

맨 먼저 학부모회의 임원들과 관심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첫 시작을 한 것이 매년 열리는 도서바자회를 중고도서 바자회로 바꿔서 진행한 것이었다. 각 집마다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가지고와 자신이 원하는 책으로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 중고도서바자회 한쪽에서는 종이접기 부스도 마련해 원하는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도 가르쳐주었다. 중고도서 바자회 진행이 원활하게 되자 나머지 사업에도 자신감이 붙었고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더 많아졌다.

우리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가을에 열린 알뜰장터 바자회였다. 학교정문에 현수막을 걸면서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학부모회 임원들을 포함해서 50여명의 학부모들이 도우미로 나서주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가지고 나와 자리를 잡고 물품홍보를 하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운동장 한쪽에는 전래놀이 부스를 만들어 제기차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을 진행했고 구령대에서는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떡볶이, 어묵, 엄마표 주먹밥을 준비해 점심으로 나눠주었다. 또한 음식 값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사랑의 모금함을 운동장 곳곳에 두었다. 그리고 모금함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금함에 넣는 자신의 돈이 어떤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월 드비전 광주지부에 부탁을 드려 아프리카 기아 사진전을 열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다. 아이들에게 경제적 관념과 기부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는 것 같다.

이어서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학교 강당

에서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2011년은 정신없이 흘러갔고 2012년에는 학부모회장을 연임하며 알뜰장터 바자회와 기아체험 캠프의 현수막에 “제 2회” 라는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아니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알뜰장터 바자회는 더욱 재밌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풍성한 참여마당이 되도록 하였다.

2012년의 가장 큰 성과는 전래놀이 사업이었다. 어릴 적 놀았던 놀이의 즐거움을 다시 한 번 추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여 학부모님들에게 ‘우리아이들에게도 놀이의 즐거움을 나눠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두 좋다고 호응을 해주며 두 팔을 걷고 나서주었다.

1학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던 터라 원하는 반은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전래놀이를 진행해주시고 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강당으로 들어올 때의 아이들의 환한 표정과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아이들의 서운한 모습은 극과 극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10명의 학부모 전래놀이 지도사들은 2학기에도 학교의 협조를 얻어 매주 목요일 2~3교시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전래놀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았다. 2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전래놀이수업을 시작했고, 12월이 거의 끝나는 방학식 전까지 이뤄졌다. 전래놀이를 지도했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반응을 볼 때 마다 더욱 신이 나서, 하면할수록 힘찬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이어진 학부모회 활동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우수학부모회라는 평을 받아 교육감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학교에선 교장 선생님께서 알뜰장터 바자회와 기아체험캠프를 학교 행사로 더욱 알차게 진행해보겠다고 하셨다. 전래놀이 수업은 2013년 정규수업(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편성이 되어 더욱 활발해지는 학부모회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회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무척 힘이 들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노라니, “지난 시간동안 나 양해주! 정말 후회 없이, 온힘을 다해 학부모회를 이끌어 나갔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학부모회장이 아닌 학부모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학부모회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양해주 (광주지부 모니터실장)





# 2014 선택형수능,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러야할 선택형 수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년 전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올해 시행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과 대학까지 준비 부족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대입시가 치러지는 날이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의 시험점수가 선택하게 될 대학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결정된 대학에 따라 향후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대입시를 겨우 3년 예고제의 기간만 채워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대입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  
**A.B형 모두 반영하는 대학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에서 최대 30% 가산점을 준다는 지라도 순위가 바뀔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는 그어느 때보다도 막판 눈치보기가 극심할 수 있다.**  
 -----

2년 전 우리회와 여러 교육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선택형수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교과부는 2014년 수능은 이미 시행계획까지 발표되어 있고, 유보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지금의 주요 사립대학이 선택형수능을 유보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그 당시에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금과 같은 의견만 제시했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4 선택형 수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우수자를 예전처럼 단순히 뽑기 힘들지 않을까 예측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수능반영 A·B유형 계열별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몇 대학은 인문계열에서 국어와 수학에 대해 A·B형을 모두 허용했다. 국어 A, 수학 B, 영어 B형에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도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학은 자연계열에서 영어 B형을 고정으로 두고 국어·수학에선 A·B형을 모두 허용해 국어 B, 수학 A, 영어 B형을 치른 문과생이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과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난이도를 고려해 최대 30% 가산점을 준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각 대학이 비율을 정해 가산점을 주지만 때에 따라서 유형간 난이도 격차를 부여해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혼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더 많이 실시해서 혼란을 줄여야 하겠지만 이것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기에 대학들은 객관성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  
**선택형 수능 국어 A형과 B형의 경우 교과범위가 다르다. 영어의 경우도 선택한 학생에 맞게 가르칠 여력이 없다고 현장교사들은 주장한다.**  
 -----

다음으로는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일 텐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교과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지원을 했느냐가 문제이다.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다고 한다. 선택형 수능 국어 A형과 B형의 교과 범위가 다른데 한 교실에서 수업이 가능하지 않고, 희망에 따라 이동식 수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묻고 싶다. 영어도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선택한 학생에 맞게 가르칠 여력이 없다고 본다. 그나마 수학은 '수리가형', '수리나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장 2014년에 선택형 수능을 봐야 하는 고3 학생인데 새 학기에도 학교현장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너무나 한심스럽다.

-----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3000여가지가 넘는 입시전형으로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여기에 올해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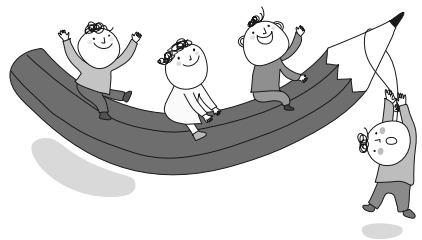
대학과 학교현장 보다 학생, 학부모는 더 당혹스러워 한다. 더러는 수능이 3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회가 유보를 주장하면 어찌하냐며 볼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대로 대비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발 빠르게 준비해온 1%의 특권층 상류층 학부모들은 별로 혼란스럽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정보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호소한다. 선택해야할 경우의 수가 몇 배나 늘었다.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선택형 수능에다가 가산점은 부여되고, 지원할 학교에 따라 선택할 유형이 다르고, A.B형 모두 자신의 성적과 등급, 백분위를 파악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손 놓고 있고, 결국 의지할 곳은 학원뿐인 상황이다.

이번에 실시될 2014년 선택형 수능은 부모의 가진 정보력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경우는 기존의 갖춰진 종합적인 능력에 '실력보다는 운'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는 더 공정하지 않다.

장은숙 (우리회 전 회장/교문)

#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생태유아교육



■  
생태유아교육은 아이와 엄마와  
세상 사람과 천지 만물을 모두  
함께 살리는 교육이므로  
죽임교육이 아니라 살림교육이고,  
가짜교육이 아니라 진짜교육이고,  
거짓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입니다.

## 생태유아교육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온 생명을 살리는 유아교육입니다. 아이 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이 바로 생태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자연의 순리와 조상의 지혜에 바탕을 둔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잉태, 태교, 출산, 육아, 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임신 전후부터 취학전까지 태아, 영아 및 유아를 위한 태아교육, 영아교육 및 유아교육을 포함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고자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신명나는 아이로 키워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어린 아이들을 아파트와 교실 공간에 가두어 '양계닭'처럼 키우는 반생태적 유아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깥이나 자연에서 '토종닭'처럼 키우는 생태적 유아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콘크리트 유치원'이 아니라 '숲 유치원' 방식의 유아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세상 사람과 천지 만물을 모두 함께 살리는 살림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육은 아이와 엄마와 세상 사람과 천지 만물을 모두 함께 살리는 교육이므로 죽임교육이 아니라 살림교육이고, 가짜교육이 아니라 진짜교육이고, 거짓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입니다.

## 프로그램 방향

생태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스스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지적 호기심과 무한한 잠재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선(善)한 존재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인격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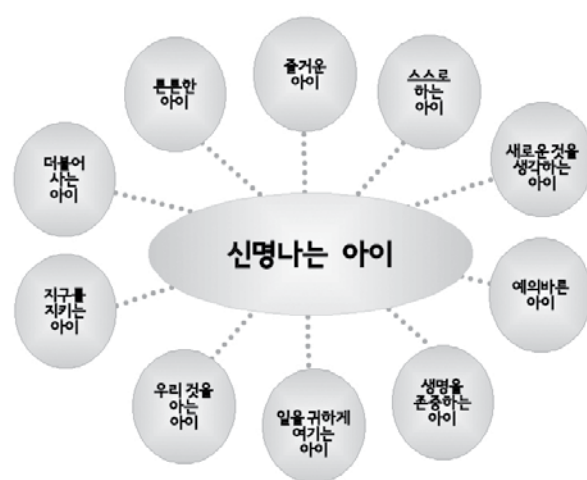
로 봅니다. 보육프로그램은 산업화·도시화된 생활공간에서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 3가지의 이념과 방향을 지향합니다.

첫째, 인간중심 교육을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존·상생하는 생태중심 내지 생명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

둘째, 개인중심 교육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공동체, 개인과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공동체, 사람과 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셋째, 이성과 감정, 정신과 육체, 지능과 감각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즉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 인간, 머리, 가슴, 손이 조화된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이성중심의 교육이 아닌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을 관찰·탐색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중심 프로그램입니다.

### 초기적응 프로그램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칩니다.

### 바깥놀이 프로그램

아이들을 실내공간에서 “밖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써, 흙, 물, 바람, 햇빛, 풀, 돌, 꽃, 동물들과 함께 놀 수 있게 합니다. 전통사회의 ‘공터놀이’와 같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가 통합된 시간 속에서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책 프로그램

아이들은 산책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공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이루어주고, 이들의 관계성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알게 해줍니다. 산책은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됩니다.

###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반별로 배당된 고랑에 각 계절에 맞는 채소와 곡식을 가꾸고, 수확해 봄으로써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식물의 성장, 수확에 대한 기쁨, 자연에 대한 책임, 흙의 생명력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노인에게는 보람을, 아이에게는 사랑을’ 노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노인·아동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세대 간 프로그램입니다.

## 생태미술 프로그램

아이들은 미술을 통하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영혼을 표현하며, 관계성·순환성·다양성·영성을 토대로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자연의 순환원리를 적용해 가급적 자연물과 폐품을 활용하고, 공동작업을 많이 합니다.

## 세시풍속 프로그램

정월대보름, 단오, 유두, 추석, 동지, 설 등을 중심으로 명절과 24절기에 따른 놀거리, 풍습, 먹을거리 등을 재현합니다. 이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생활’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에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주기성을 알게 하고, 우리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알게 하며,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명상 프로그램

혼탁한 세상의 기운으로 오감이 퇴화되고 정서

적으로 불안해지고 영혼이 맑지 못한 아이들에게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의 본성을 되찾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생명이 담긴 유기농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신토불이의 맛을 심어주어 아이들의 건강과 기(氣)를 살리고 아울러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자연건강 프로그램

자연건강은 아이가 본래 갖고 태어난 자연치유력을 일상생활을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풍욕, 절하기, 물마시기, 복식호흡, 소금(죽염)양치 등을 통해 자연건강을 실천합니다.

## 절제·절약 프로그램

생태의 기본핵심인 순환과 돌림의 경제를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물물교환, 알뜰시장, 각종 폐품 활용하기, 산책조끼 물려주기, 음식쓰레기 퇴비 만들기, 1회용품 안쓰기 등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몸짓놀이 프로그램

몸을 자극함으로써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몸을 유연하게 하며, 정서적인 순화와 함께 한국인 고유의 몸짓을 살려냄으로써 한국인의 정신과 기(氣)를 되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손끝놀이 프로그램

아이들이 손끝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이 조화롭게 발달하여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느질, 실뜨기, 자수, 털실짜기 등 손끝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면서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감각, 정교함, 치밀성을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 아이들의 하루 일과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보다는 삶의 공간으로 만나게 됩니다. 일과는 ‘지금 여기’ 활동을 중시하고 여유로움이 배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택 교수**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사단법인 생태유아공동체 대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사)숲유치원협회 회장





## 정읍지회는요~~

정읍지회는 2004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2005년 3월 31일 창립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운동,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운동, 학부모·학생대상 미디어교육을 했으며 2008년 대입시안 반대운동 서명을 우리회 전국 서명의 1/10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읍 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한 학교급식운동의 결과로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에 정읍에서 생산한 무농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부당함을 알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북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납부 거부자를 조직했고,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단위학교별로 반환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사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

앙 차원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민선교육감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되어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정읍에서만 연간 7억, 전국적으로 3,600억 원의 학부모 수익자 부담 경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고사 거부운동과 체험단 모집, 연대 사업 등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교육현안에 대해 대응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지회 자체 사업으로는 해마다 새내기 학부모 교실(초·중·고), 엄마표 영어소모임(2개 소모임 운영), 교복공동구매, 가족산행, 역사기행 및 캠프, 교육모니터실, 학부모 상담실, 학교운영위원회 집중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희 (정읍지회장)



거제지회 2013년 계사년 참학거제지회 운영위원들입니다



광양지회 2월 14일 참교육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요





광주지부 2월 16일~17일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김포지회 2월 23일 제5회 대보름 쥐불놀이 행사를 했어요



남부지회 2월 19일 새학기 학부모교실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



부산지부 1월 28일부터 2월 23일까지 새학기 학부모교실을 진행했어요



서울동북부지회 2월 5일 새학기 학부모교실을 진행했어요



안양지회 2월 15일 많은 분들의 축하속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했어요



전주준비위 2월 23일 황방산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홍성지회 2월 19일 새학기 학부모교실을 진행했어요





지부지회 소모임 - 부산 참학 텃밭 가꾸기 소모임

## 텃밭 가꾸기의 행복한 이야기

귀농학교가 운영하는 주말농장에서 40평을 분양받아 부산참학 소모임으로 네 가족이 모여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른 봄 내리는 비를 맞으며 농장답사를 갔답니다. 봄비에 젖은 산길하며 산에 오르는 동안 계곡 물소리와 숲길에 반하여 농장을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지요.

여러 단체가 모여 함께하다보니 밭에 심는 작물도 매우 다양하여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어느 가족은 밭 한 가운데 해바라기를 심어서 농장을 환하게 빛 내기도 해서 참 행복했답니다.

처음에는 요령부족으로 밭고랑 이랑을

일구기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차츰 흙과 친해지고 새싹이 움트고 그것이 자라는 모습에 매주 가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변했어요. 고랑에 물을 채우고 물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감자가 싹이 잘 자랐어요. 갈 때마다 예뻐지는 작물들은 우리들 마음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작은 땅에서 얻어지는 작물들은 네 가족이 먹기에 아까워 나누어 주고픈 마음에 부산참학 회원을 농장에 초대해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며 대농의 기분으로 잔치도 열었습니다.

김옥량 (부산지부 부지부장)



## 텃밭 일기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실감한 오늘이다. 파가 빼곡히 올라와 있었는데 솟아내는 것이 아까워서 참다가 냉정하게 뽑아 주었더니 어찌나 실하게 자라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옆에 솟아주지 않는 부분과 대조적이었다.

그동안 밭에 가면 빨간색을 담당하던 토마토가 이젠 웃지 않고 있었다. 아직도 푸른색 방울은 꽤 많은데 익히지 않고 있음은 자신의 역량만큼 사는 모습인가? 아님 인간의 끝도 없는 욕심에 대한 훈계인가?

지난주에는 다음 주에 오면 그래도 조금은 익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 냉정하게 익지 않고 있는 모습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

밭을 놀리지 않기 위해 토마토 대를 걷고, 시금치·상추·무씨를 뿌리고 돌아본 밭은 참으로 정이 많이 들었다. 콩고투리가 주렁주렁 달리고 무성한 고구마순을 걸어 나물거리를 얻어 오는 손길은 매주 바쁘다. 할일이 없으려니 하고 이번 주는 여유 있는 농부가 되어 보고자 한 마음은 항상 아쉬움이다.

다른 텃밭 주인들의 심는 작물 구경도 재미있다. 붉게 익어가는 수수, 쭉쭉 자라는 토란, 보라색 흰색 꽃 피우는 도라지. 올해 심어본 작물 종류를 세어보니 30여 가지나 된다. 우리도 내년엔 좀 더 다양하게 새로운 작물을 심어볼 계획이다. ㅎㅎㅎ

김옥량 (부산지부 부지부장)





## 상담실에서

# 체육시간에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이 너무 적고 학교는 책임을 회피한다

고2인 우리 딸은 중3때 심장판막을 기계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여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수술여부 등의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록했다. 2012년 4월 체육시간에 농구시합이 있었다. 선수를 교체할 때 애들이 딸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아이가 엉겁결에 뛰게 됐다. 도중에 아이가 숨이 막힌다며 밖으로 나왔고, 한 친구가 등만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조금 된다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 더욱이 바로 옆에 있었던 체육선생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이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한 달가량 있었다.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2주 전에 집에 왔다. 현재 아이는 시력이 상실됐고, 뇌는 70%가 파괴되었으며, 식물인간 상태다.

지금까지 여러 검사와 치료 등 병원비가 3천만 원가량 들었다. 교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병원비는 지급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여 그나마 안심했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지급을 요청하여 보상액수가 나왔는데 병원비의 10% 수준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모금을 하여 전달해줬지만, 학교에서 이런 모금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고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아이의 담임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학교도 말을 계속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이 사고는 학교안전공제급여 대상이나,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

제지급기준 제 8조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자녀분의 기왕증, 즉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 정도와 사고와의 비율을 산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산정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심사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시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분의 기왕증 정도와 사고와의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왕증 정도를 높게 배정하여 비용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이 심장수술을 하였다 해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렸고, 자녀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과활동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에 대하여 안전공제회의 안내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 경우에 해당되는 이 두 급여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한 위자료가



지급되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재심사 청구 이후 공제회의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학교장을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조치 등이 미흡했고,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하게 수업활동에 참여시킨 사실을 들어 교사를 관리·감독하는 학교장과 학교 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생활글

## 2013년 졸업식에 가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짧았던 설 연휴, 그리고 바로 이어진 졸업시즌! 시샘이라도 하듯 큰 행사에 맞추어 바짝 추워진 날씨가 야속하다. 큰아이 중학교 졸업식에 가는 길은 정말 추웠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란다. 11시 졸업식이지만 서둘러 학교를 찾았다. 강당은 어느새 먼저 온 학부모들로 꽉 찬 채 식전 행사인 졸업생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었다. 연예인들의 공연만큼이나 열기가 뜨겁다. 여학생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이 정말 졸업식을 하는 날이 맞나 싶었다.

요즘 졸업식은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축제 속에서 행해진다고 한다. 잠시 내가 졸업

하던 80년대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졸업식 노래와 여기저기서 들리던 울음소리,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던 그 시절…….

재학생과 졸업생의 공연이 흥겹게 진행되는 속에서 '졸업식도 진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 아련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변하지 않은 건 삼삼오오 꽃을 들고 자식의 얼굴을 찾아 종종대는 부모와 친지들. 조금 이색적인 것은 학교 앞에서 파는 꽃들이 생화보다 조화가 많

다는 것이다.

그 만큼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이제는 IT시대라고들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손안에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얼굴 보며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카톡'을 통해 말보다 빠르게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의 졸업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이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예전에는 졸업 후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친구는 그대로 영영 이별이었다. 한참 큰 후에야 아쉬움과 그리움에 젖어, 한때 'I Love School'라는 친구 찾는 사이트가 유행하기도 했다.

어느새 내 키만큼 훌쩍 커버린 듩직한 아들의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매서운 추위는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내 추억속의 경건한 졸업식의 아련함을 맛 볼 수 없음이 못내 아쉬웠다.

양관모 (12기 상담원 김지애 선생님 부군)



미중물(12)

# 오래오래 튼튼하게 자라는 거목으로 키우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똑똑하길 바란다. 그러나 사실은 ‘남보다 똑똑하길’ 더 바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똑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성적이 좋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공교육에 더하여

사교육까지 퍼붓고 있다.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인생은 길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배운 지식이나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후의 긴 생애동안 스스로 배우고 익힐 일이 많다. 그런 것은 사교육도 없다.

내가 사는 상주에서 감나무를 잘 키우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묘목을 심을 때 거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감나무 밭에 묘목을 세워놓고 흙만 덮어준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거름을 많이 해야 그 어린 묘목이 잘 자란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도 거름을 하면 어린 묘목은 잘 자란다. 비료까지 첨가하면 가지도 무성하고 이파리는 풍성하다. 그런데 그런 나무는 몇 년 후에부터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고 만다고 한다.

원리는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다. 묘목 바로 옆에 거름을 넣어주고, 해마다 비료를 뿌려대면 어린 묘목은 뿌리를 넓게 뻗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이는 가지와 이파리는 무성하되, 뿌리는 바로 옆 거름 있는 곳까지만 뻗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한 뿌리에서 빨아올리는 용량이 이파리나 가지에서 필요한 양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하지만 거름을 주지 않으면 어린 묘목은 양분을 찾아서 이곳 저 곳으로 뿌리를 뻗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가지나 이파리보다 뿌리가 더욱 왕성하게 뻗는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갈수록 튼튼한 나무로 자라서 몇 십 년 몇 백 년을 버티면서 자라는 튼튼한 거목이 된다는 것이다.

유기농 벼도 마찬가지다. 당장 빨아먹기 쉬운 비료보다 뿌리를 넓고 깊게 뻗어야 먹을 수 있는 거름을 주게 되면 벼포기의 뿌리가 이곳 저 곳으로 뻗어나간다. 모내기 직후에는 다른 관행논의 벼보다 형편없어 보여도 추수할 때쯤 가면 동네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된다. ‘처음에는 뭘 먹을까 싶더니, 송선생네 나락이 잘 되었네’라고 한다.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쑥쑥 받아먹을 수 있는 완제품을 제공하면 당장 아이들이 똑똑해 보이고, 학교 성적도 잘 오른다. 그런데 사교육을 끊는 순간 아이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 효율성이 점점 떨어진다.

반면, 어릴 적에 책임기와 같은 기초 공부를 하게 되면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겠지만 갈수록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길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되지 않으면 조바심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비료를 뿌리게 될 것이다.

허긴 나 역시 당장 비료를 뿌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난다. 옆집 나락을 보고, 옆집 배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하지만 꼭 참고 평소 땅의 힘을 기르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언제부턴가 나의 생각보다 우리 나락과 배추가 잘 자라주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오래오래 튼튼하게 자라는 거목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당장 보기 좋은 나무로 키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송대현 (우리회 자문위원)

회원 인터뷰 - 최윤정

##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이 왔으면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지회 총회 때 사운드 오브 뮤직 립 싱크를 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결국 전국총회까지 가게 된 민들레입니다. 무대가 너무 멀어 저를 어리게 봐주신 분들 깜짝 놀라시겠

네요.

우리가족은 남편 강아지 퐁과 저 민들레와 두 딸이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대안학교 4학년이고요, 작은딸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7세 방입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별명을 부르지요. ^^ 흙을 밟고 실컷 놀라고 선택한 곳이고 지금도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참학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참학은 어린이집 엄마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너무 좋아하기에 뭐하는 곳인가 갔다가 소모임에 들어오려면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전엔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고요. ^^ 가입 후 어렵풋이나마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과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첫딸을 키우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엄마의 손길이 안 닿으면 어쩔 줄을 몰라라하는 걱정들 땀에 제가 자꾸 아이를 가둬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만의 생각이 있고 엄마도 엄마인생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속에서 부모들과 아이 키우는 고충도 함께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풀어나가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거우니까요~

스무 명 아이들에 교사 세 분, 맛있는 밥해주시는 맛단지 할머니, 유기농 식단.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자연스럽게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보내게 되었는데

매일 숲길등교에 텃밭, 논농사, 양로원 봉사 등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안학교는 풀어야할 숙제가 많긴 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나만의 교육관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이 너무 공부와 시험,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밥 빨리 먹는 아이가 있으면 늦게 먹는 아이도 있고요.

수학, 영어 좀 못해도 요리나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해내는 보람도 느낄 줄 아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 조직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참학에 바라는 점이라기보다 사실…….

참학이 할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보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어떤 교육감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최윤정 (고양지회 회원)



## 여행기

## ‘따로 또 같이’ 즐긴 크루즈에서의 7박 8일



아이가 학원에서 나온 ‘크루즈’ 소개 글을 읽으며 “엄마, 나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수영도 할 수 있는 크루즈를 꼭 한번 타볼 거야.” 그렇게 말한 지 1년여가 지나, 내가 스텝으로 피스&그린보트를 탈 수 있게 되어 가족이 다함께 신청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루즈 탑승, 기대감과 달리 선 내는 좁고 답답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파도도 높고, 날씨가 고르지 못해 갑판 출입이 금지되는 등 아이가 답답해 할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피스보트의 꽃이라는 기항지 투어를 통해 일본을 경험하며 바람을 쏘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항지 여행은 모두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나와 아이가 함께 오키나와를 갔다. 출국 수속 등으로 일정이 늦어져 세계 최대라는 추라우미 수족관을 눈으로 훑으며 아쉬워했지만, 류큐 왕국의 수리성을 보며 일본의 여느 성과는 다른 모습에 오키나와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적의 1마일이라는 국제 거리에서는 아이와 둘이 시장 구경을 하며 고구마도 사먹고 간만에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쓰루가. 아이는 아빠와 함께 케히의 소나무 숲과 묘쓰우지 절, 아사이치 해산물 시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리라포트 온천에서 온천욕까지 즐기고 와 다른 기항지를 다녀온 나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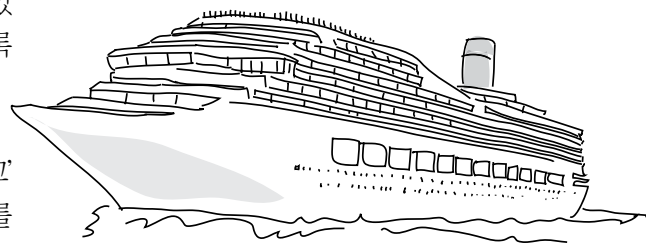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구마모토성과 아소산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가토 기요마사가 지었다는 구마모토성 이야기를 미리 읽고 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소산 국립공원에서는 갑자기 내린 눈과 바람 때문에 분화구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설경감상과 함께 아이들은 볼이 빨갛게 얼도록 신나게 눈싸움을 할 수 있었다.

아이는 기항지 투어 사이사이에 ‘어린이 선상학교’에 함께하기도 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일정표를

손에 들고 빈 장소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놀이를 즐겼다. 일본 아이들과 선상 축구대회까지 열어 패배를 못내 아쉬워하기도 했다. 거센 파도에 배가 흔들려 잠을 제대로 못잘 때도 있었지만 나의 걱정과는 달리 얼마나 뛰어 놀았는지 금방 꿈아 떨어졌다.

돌아온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피스&그린보트는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 크루즈를 타보는 것이 꿈이었던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다시 배우고 있었다. 피스&그린보트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여행도 다녀왔고 내일 또 친구모임이 열린다. 헤어지기 아쉬워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예정이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하고 놀까, 친구가 고향 아이들이 오늘 밤 잠을 설칠 거 같다.

이지현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사무국장)



## 자유투고

## 사랑하는 나의 피붙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느덧 나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장애아를 둔 아빠, 현진이 아빠로 유명인(?) 아닌 유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형제 아이들에 대한 훈육법을 장애를 가진 아이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말로 표현 못하는 장애아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을 보는 방법을 찾고 보니,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 가슴으로 대화하라

자폐를 앓는 아이들의 감정은 극심하게 양극증(조울증)을 보입니다. 일반 아이들도 정상 범위에서 양극증이 존재하며 사춘기에 들면서 그 기복은 커져, 우스갯말로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사춘기인 청소년기가 옵니다. 자폐아들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은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아이에게 언어적 행동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언어로 아이의 양극증에 따른 폭력성을 진정시키고 아이 자신이 스스로 가슴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더욱더 잘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아이의 돌발행동에서도 언어적으로 행동수정을 요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가정에서 부

모가 이유를 따져 묻고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런 방법들보다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그 아이에게 가슴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모습에서 자녀는 가슴속에 문을 열고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 관리자보다 친구가 되자

자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친구이기보다는 기대치가 있는 관리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지극정성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 인한 손실도 막대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 곳에는 기대치가 있는 관리자의 모습이 우리 학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고, 학교에서 왕따가 되어 괴로움을 당해 학교 가기가 싫어도 부모 눈치에 아이들은 표현을 못 합니다. 이유는 부모가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 주는 상대가 아니라 기대치가 있는 관리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는 다른 친구들보다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 자녀와의 약속은 가장 소중하다

내 자녀와 친구가 되는 법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입니다. 자녀와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자녀와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던 작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꼭 지키고 차마 지키지 못했다면 왜 못 지켰는지를 자녀에게 설명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한 노력을 이야기해 준다면 자녀도 부모를 이해해줄 것입니다. 부모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부모라 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녀에게 “미안해”라고 하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쑥스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쑥스러움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지속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김상환 (천왕초등학교 학부모위원)



## 방송모니터(3)

## EBS 「부모」 ‘아동발달의 종합판, 사회성’을 보고



「부모」는 EBS TV의 대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육아, 교육, 가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한 생명을 낳아 그 아이를 의젓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기까지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고민은 참으로 깊고도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부모들을 위한 길 안내자이자 구원 투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 15일과 16일에는 아동발달 특집으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방송되었다. 요즘 엄마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는 게 옛날처럼 대가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게 아니다 보니 ‘내 아이가 혹시 사회성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사회성이 풍부해야 어디가든 잘 적응하고 출세도 할 텐데’라는 염려가 이 시대 엄마들 마음에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특집 방송은 핵가족 시대, 맞벌이 부부 시대를 살며 아이를 길러야 하는 엄마들의 고민에 부응하는 방송이었다.

15일 방송은 임상심리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오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성의 참뜻, 흔히 갖는 오해, 아이의 연령별 특징과

사회성 기르기 방안, 아이 기질에 따른 엄마의 대처법들이 소개되었다. 16일은 엄마 모임 두 팀이 나와 다양한 형태의 퀴즈를 풀며, 15일 방송 내용을 복습하고, 간단하게 상담도 받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아이의 사회성으로 고민하는 엄마라면 해결의 실마리도 찾고, 복습으로 의지도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또한 성급하게 우리 아이에게 사회성이 있네, 없네를 따져보려 하지 말고 아이가 일정 나이에 이를 때까지 즉, 여러 측면으로 성장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전문가의 조언도 무척 의미 있게 들렸다.

보는 내내 느낀 것은 정말 ‘교육 방송’다운 형식이었다는 거였다. 15일 방송은 마치 차분한 강의를 듣는 듯했고, 16일 방송은 팀 경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복습 겸 시험을 치는 듯했다. 배우고 또한 익히게 하는 것이니 전달 효과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익히 받아왔던 학교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다. 16일 방송을 사회성에 따른 고민의 대표적 사례를 듣고 상담하는 식으로 갔더라면 더 쉽고 공감도 크지 않았을까. 난이도 높은 퀴즈를 풀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닐테니 말이다.

그와 더불어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의문도 들었다. 프로그램 제목은 ‘부모’이지만 방송에서는 내내 ‘엄마’가 아이의 사회성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온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도 ‘0~3살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엄마와의 애착 속에서 사회성 토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라는 육아의 정설을 펼쳤다. 하지만 실제



시대의 흐름은 어떠한가? 워킹 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은 엄마를 대신하여 조부모, 베이비시터, 때로는 아빠가 주양육자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2012년부터 0~2살 무상 보육이 시작되자 홀로 하루 종일 육아를 담당했던 전업 주부들까지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진정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줄 사람은 누구인가? 방송에서도 ‘이웃사촌으로 사는 친밀한 마을 공동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질 좋은 보육 시설’에서 사회성을 습득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워킹맘, 핵가족맘의 고민을 덜어주는 해결책이자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옥연희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회원)

## 책 소개

## 『맨홀』

(박지리 / 사계절출판사)



열여덟과 열아홉, ‘나’는 두 번의 봄을 죽음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는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나와 누나를 ‘맨홀’로 몰아넣던 아버지의 죽음이다. 나와 누나는 밤마다 어두운 구멍에 숨은 채 하루는 아버지를, 하루는 종과 다름없는 엄마를 죽이는 상상을 한다. 소원은 엉뚱한 기회에 이루어진다. 소방관인 아버지가 화재진압에서 사고를 당한 것. 나는 갑자기 찾아온 평화 속에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살아볼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악인인 아버지는 열여섯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영웅’이 되어버린다. 나는 도무지 그 부조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누나와 엄마는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해 버린다. 이에 분노하는 행위는 ‘그 사람 닮은 꼴’로 치부되고, 나는 또다시 삶의 어두운 구멍 속에 빠진다.

사회 가장 밑바닥에 존재했던 공고생인 나는 ‘제 발로 우리 밑으로 걸어 들어온 파키들(소설에

서 ‘파키’는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칭한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다. 작은 시비는 살인이라는 파국을 불러오고, 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속마음과 겹쳐 ‘운명’이 되어버린다. 열아홉 살 봄에 맞은 두 번째 죽음이다.

나는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엄정한 처벌을 받음으로서 악인이 영웅이 되는 현실, 누나에 대한 배신감, 폭력 앞에 비굴하게 도망 다녔던 자신에 대한 수치심 등 삶의 구멍들이 메워지길 바란다. 그러나 ‘영웅’ 아버지와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이 부각되고, 사람을 죽인 죄는 보호관찰 1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만다.

열아홉 살 살인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소설은 답답하고 끈질기게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헤집는다. 구멍투성이 삶과 화해할 수 없는 나의 선택이 무척 가슴 아프다.

조혜옥 (본부 상근활동가)



사설

# 새 교육부 장관은 경쟁과 차별로 얼룩진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전 교과부 차관이 내정되었다. 교육관료가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전례가 없었기에 교육전문가 장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피폐해진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세워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 했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다양화 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손 보아야 한다. 고교 다양화 정책, 일제고사, 학교 선택권으로 학교 현장은 갈등과 혼란 속에 빠졌다. 과도한 성적 경쟁은 학생들이 목숨을 버리게 만들었고 학부모들을 학교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계층을 위한 차별정책으로 학교를 등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바란다.

서 내정자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드러나는 교육

문제를 땀질식으로 때워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전면 재논의하여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대혼란에 빠지는 일을 더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시도 교육청,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구조와 교육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 능력과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자신의 꿈을 찾아나가는 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어 헤어 나오기 어렵게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육 관료로 오랜 경험을 한 서 내정자가 교육개혁을 위한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검증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지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 선 따라 걷는 아이

크리스틴 베젤 글 | 알랭 코르크스 그림 | 김노엘라 옮김 | 30쪽 | 값 11,000원

“혼자 상상하며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함께 놀자!” 하고 아이에게 속삭이며 어른들에게는 ‘선 밖에도 멋진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책  
단순한 점, 선, 면에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 모양과 색채의 잔치가 된 그림들이 아이의 풍부한 생각과 감정을 보여 준다.



## 틱톡, 일어나세요!

앤드리어 어렌 글 | 그림 | 서애경 옮김 | 32쪽 | 값 11,000원

시계가 귀하던 시절,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역사책에서 하찮게 여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세상이 바뀌면서 사라져 버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 국제독서협회 추천 도서
- 미국 어린이도서협회 블루 리본 수상
- 뱅크스트리트교육대학 선정 올해의 어린이 책
- 페어런츠 초이스 금상 수상

공교출판사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박범이 창간일 1991년 5월 1일  
기획위원 고경환 김은영 김정인 김지애  
송환웅 이옥주 정 방 조혜옥  
주 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 화 02-393-8900 전 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amhak  
트위터 @chamhak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부회장 박이선 송환웅 최선미  
감사 김석순 유지숙 임명희 학부모상담실장 고유경  
정책위원장 박이선 조직위원장 최양희  
상근자 김은영 조혜옥 한분수

서울지부	010-8733-0207	지부장 강해승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김해수
	동북부지회 02)902-9246	지회장 나명주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정숙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이민애
	수원지회 010-2896-8400	지회장 안용정
	안양지회 010-4216-0893	지회장 김민영
	양주지회	지회장
	용인지회 010-6259-7499	지회장 임유진
	의왕지회 010-9467-5306	지회장 정상우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김해지회 010-5040-3296	지회장 성명자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경북지부	010-4511-9143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010-6266-8796	지회장 신경진
	구미지회	지회장
	상주지회 010-2276-2838	지회장 김미경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칠곡지회 010-4941-4456	최순필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이경자
	광양지회 010-8617-8201	지회장 박치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최정희
	목포지회 061)284-6574	지회장 김승진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화순지회 010-2619-9136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충남지부	010-5420-3979	지부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천안지회 041)548-6674	지회장 신선정
	홍성지회 010-2614-2208	지회장 김순희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임진희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오미경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곽선희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준비위원회	서부 010-8913-6833	위원장 송성남
	아산 010-7688-4660	위원장 김경숙
	전주 063-287-6070	사무국장 장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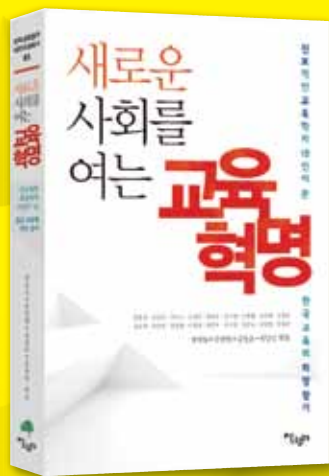
자문위원회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수/강령숙(배재대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영규(변호사/강지원(법률사무소 청치 변호사/권정희(놀이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교수/김명신(서울시 의원)/김만남(전 경북대 교수/김영심(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 국회의원)/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성열관(경희대학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사 상임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경신대학교수)/안성문(제일합동법률사무소)/이광철(민변사무처장)/이윤미(홍익대학교수/이재문(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학교수/전양숙(서울심리상담 소장)/정종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청초 변호사)/최문순(강원도지사/최현섭(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꿈꾸는교실 관장)



# 대한민국, 교육혁명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

## 진보적인 교육학자 18인이 쓴 한국 교육의 희망 찾기

김명숙 강순원 김연순 김용일 반상진 성기선 성열관 송순재 심성보 유성상 유진영 윤철경 이두후 이윤미 장수명 정민승 한민길 한승희



### 오늘의 행복, 내일의 희망, 미래를 여는 교육혁명을 향하여!

이 책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보적 교육학자들의 진심 어린 우려에서 나온 집단 지성의 산물이다. 우리의 교육적 역량을 계발하려면 학교체제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혁명'의 기본 철학은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복지, 생명, 생태, 협력, 창의성, 자치 등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철학을 바로 세우고, 미래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 03 | 380쪽 | 값 17,000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27 2층 | 전화 02-3141-6553 | 팩스 02-3141-6555 | 이메일 gwang80@hanmail.net

교육혁명을 꿈꾸는



###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 좌우지간 인권이다

안경환 지음 | 288쪽 | 값 13,000원

'개인은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는 천륜(天倫)을 바탕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권위마저 짓눌리고 있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불의한 시대입니다. 온갖 수모를 감수하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했던 안경환 위원장의 지혜와 노고는 우리의 길잡이,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 책은 경천애인(敬天愛人)을 깨닫고 실천한 한 법학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증언입니다. ● 함세웅 신부



### 학교, 겁내지 말자

참교육학부모회 기획 | 박이선 황수경 지음  
값 12,000원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기획하고,  
십 년 넘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선배 학부모가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학교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에 가야 할 돈과 내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학교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을  
기본지식을 비롯해 지혜롭고 건강한 학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학교, 아는 만큼 보인다! 무턱대고 불안해 말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민들레 [121-52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4 숭실빌딩 2층 | 1년 정기구독료 45,000원 | 정기구독 신청 02) 322-1603 | mindle98@empal.com | www.mindle.org

현장에서 배우는 어린이 건축 교실

# 우리 집을 지어요!

## 책으로 하는 생생한 체험 학습

위험하지만 배울 것이 많은 건축 현장!

호기심 많은 주인공 '팀'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설명, 흥미로운 그림과 사진을 통해  
집터를 닦는 것부터 정원을 만들기까지 건축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글 톨프 토이카 | 그림 페렌크 B. 레피츠 | 사진 하이케 오센코프  
옮긴이 박종대 | 감수 임지택  
32쪽 | 값 22,000원



반짝반짝 유리창

벽돌은  
차곡차곡

삼질도 해 봐요~!

